설경기 작년 최악이라더니 올해가 더 심하다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 매출 5~7% ↓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불과 4일 앞두고 있지만 광주지역 유통업계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할 것없이 명절 대목경기가 실종된 상태다.

예년같으면 명절을 앞둔 1주일이 최대 대목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재래시장은 물론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전년 설 대비 매출이 5~7%가량 줄어들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설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매출이 좀처럼 늘지않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마케팅을 벌인지 1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매출이 전년에 비해 7%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와인과 홍삼 등 일부 웰빙상품과 나주배, 영광굴비 등 지역 특산품이 20~40%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지만 20만원이상인 갈비와 정육세트 등 고가제품은 판매 부진을 겪고있다.

특히 올해는 소비침체로 전년대비 선물세트 평균가격이 20~30% 하락한 5~10만원대가 주력상품으로 등장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7월 이마트 개점으로 인해 지난해 설에 비해 매출이 40%가량 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트 개점효과를 빼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매출기여도가 가장 큰 상품권 매출이 20%가량는 것을 비롯해 친환경 청과세트, 와인, 홍삼, 홍초 등 웰빙식품 매출은 증가했지만 잡화, 의류 등은 5%의 역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설 대목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대형마트들도 마찬가지로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경우 고객수는 예년수준이지만 매출은 전년대비 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또 예년에는 4~5만원대가 주력 선물세트였지만 올해는 3~4만원대로 내려가면서 고객들이 찾는 상품도 '고가→중가→저가' 선물세트로 하향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래시장은 아직까지는 대목경기를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정대규 회장은 "재래시장은 통상 명절 3일전부터나 매기가 일어나고 찾는 품목도 제수용품 등에 국한된다"며 "아직까지는 설 분위기를 느낄수 없지만 광주은행이 지난 5일부터 30개 지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에 들어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설 매출도 전년에 비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매출이 더 줄어들어 몸으로 느끼는 대목경기 침체가 더 심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수용품값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싸

올해 설 제수용품 값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는 한국물가협회와 함께 지난 7~8일 서울·인천·대구 등 7개 지역의 재래시장 9곳과 대형유통점 9곳의 22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이용시 차례상 마련비용은 평균 15만5천170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반면 같은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려면 평균 18만8천580원이 들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품목 가운데 조기와 동태포·황태 등 수산물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33.2% 가량 저렴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도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에서 17.9% 가량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고물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값이 오른 과일류의 경우 사과(부사)와 배(신고), 단감을 각각 5개씩 사는 비용이 재래시장은 2만8천860원, 대형마트는 2만9천87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혁신형 중기 952개사로 늘리겠다"

광주·전남 중기청 개청 11돌…장순호 청장 기자회견

"잠재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 혁신형기업 지정을 지난해 725개에서 올해 952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 12일로 개청 11주년을 맞았다. 장순호 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혁신형기업 확대를 포함, ▲중소기업지원 허브기관 역할강화 ▲전략적 마케팅 지원 ▲광산업 관련 기업 지원 ▲시험·연구지원 역량강화 등 5대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허브기관 역할강화와 관련, 장 청장은 "중소기업 혁신포럼, 연구개발(R&D) 지원기관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정보공유 및 연계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청은 온·오프라인을 이용, 지역 우수상품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및 판로를 구축하고 한국광기술원을 광산업 전문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해 광기술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안정지원에 나선다.

장 청장은 "기존의 본청 위임사업인 기술혁신 및 산학협력 사업,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여성기업 활동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기반 구축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모든 다가구·다세대 주택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

이르면 이달말 부터 적용

앞으로 모든 다가구주택과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감면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축사, 양곡도정시설 등은 면제된다.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하순 관보 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 대책 때 밝혔던 다가구,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18평이하)에 대한 50% 경감조치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면제대상이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일보사-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고영만 貿協광주·전남지부장 특강

13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한 80여명의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이 고영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출성패 바이어 선택이 좌우"

정부 중기자금 지원혜택 알면 창업 도움

고영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무역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업자는 통관기간, 하자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손해청구금액의 합리적 여부, 물품검사과정 등에 관해 먼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가 공동주최한 여성경제인포럼에 강사로 나선 고 지부장은 '여성무역인 창업 및 바이어 발굴'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지부장은 또 "클레임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라며,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상사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해외 바이어 발굴에 있어서 고 지부장은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시장의 전문지, 인터넷 사이트 들을 통해 자사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후·문화·시장여건 등을 파악한 뒤 판매지역을 선정하고 수입동향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 바이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별보고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 등을 챙기는 작업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역협회의 바이어·셀러찾기 KOMPASS 서비스나 KOTRA 등 무역관련기관의 종합포털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무역업 창업과 관련, 고 지부장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과 창업자금 지원혜택이 있어 관련규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감면대상은 ▲창업후 2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제조업·광업·정보처리업·통신업 등 8개 업종이 포함된다. 감면기간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다.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사업성·기술성·지원타당성 평가를 통해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지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친환경 무독성 '고어텍스 방수제' 인기

'드림코리아' 시판

최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숨쉬는' 방수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수제 전문 생산업체인 드림코리아(www.dreamkorea.biz)는 13일 친환경 무독성 방수제인 '고어텍스 방수제'가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고어텍스 방수제'는 일반 방수제와는 달리 통기성을 갖춘 개발 특허상품으로, 방수면인 시멘트의 부식을 방지함으로써 방수효과를 오랜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080-362-7788.

드림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방수업계는 '고어텍스' 외에도 각종 친환경 방수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드림코리아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지정업체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소비자 고발센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